

닐 스미스의 모순 또는 자본주의의 모순

Contradictions of Neil Smith or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최병두*

1. 닐 스미스의 모순

2013년 2월 20일 뉴욕시립대교(CUNY)에서 거행되었던 닐 스미스의 추모식에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추모사를 시작하자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하비의 추모사 첫 말은 “닐은 내[하비]가 이때까지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왜냐하면, 닐은 모순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였다(Wachsmuth, 2013: 409에서 재인용). 하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닐 스미스가 그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술과의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비의 말에 의하면, 닐은 공부만 하는 좋은 대학원생이 아니었다. 그는 시간의 반을 피켓 들고 시위에 나가는데 보냈고, 다른 반은 술집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이날 추모식은 닐이 대학원 피고용자들의 시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위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있는 비디오 상연으로 끝났고, 여기서도 그는 북잉글랜드 민요를 편곡한 <사회주의 ABC(The Socialist ABC)>를 목청껏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제자 돈 미첼(Don Mitchell, 2014)도 닐 스미스가 무척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다고 느꼈다고 한다. 미첼이 그의 모순으로 지적한 바로, 우선 그는 한편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정원 가꾸기와 새 관찰하기를 즐겨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연(첫째 자연)은 사회적 자연(둘째 자연) 내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열렬한 유물론자였지만, 사상과의 투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겨 둘 수 없고 옹당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로 닐 스미스는 지도학생들의 연구에 대해 많은 뜨거운 비판을 했지만, 그 자신의 연구를 수정하는 것보다 더 싫어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자기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성찰은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내가 체험한 닐 스미스도 어떤 의미에서 모순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주장은 매우 이론적이고 이성적이지만 또한 그의 행동은 매우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논리적 이성과 열정적 감성을 내면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이 모순적 경향, 한편으로 너무 논리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너무 열정적이었던 닐 스미스의 모순이 그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그의 모순적 행동들 가운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앞의 두 가지 모순은 사실 그 자신에 내재된 모순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그의 저항적 삶이 그런 모순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내가 회상할 수 있는 닐 스미스와의 대화에서도 함의되어 있었다. 그가 1999년 1월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동아시아대안지리학회’ 창립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에게 ‘한국의 인상’에 대해서 물었다. 닐은 “생각보다 한국이 많이 근대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약간 장난스러운 말투로 한국의 근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물었다. 그는 약간 망설이다가 근대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왜? 근대화란 결국 자본주의화를 의미하지 않는가?”라는 나의 물음에 대해, 그는 근대화는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해 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대화와 자본주의화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주지만 그 내적 모순들로 인해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나는 1999년 4월 멕시코시티에서 있었던 국제비판지리학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닐을 다시 만났다. 멕시코시티 시내의 한 노천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아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좁은 거리를 가득 채우면서 오가는 멕시코인들의 다양한 피부색이 화제가 되었다. 닐은 멕시코인들은 대부분 원주민들과 백인 침략자들 간의 혼혈이지만, 백인의 피부색처럼 되기를 매우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닐에게 물었다. 멕시코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혼종성’의 의미대로 백인들과 거듭거듭 결혼하여 모두 흰색에 가까운 비슷한 피부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또는 원주민들은 그들대로 따로따로 결혼하여 본래 피부색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그는 원주민과 백인 간에 결혼을 장려하여 모두 같은 피부색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나의 회상 속에 맴도는 이러한 두 가지 에피소드적 대화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대화의 핵심은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관한 담화자들 간의 행태적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처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근대적 발전이나 제국주의적 침탈에 내재된 모순적 경향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나의 물음과 닐 스미스의 답변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대화를 회상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점은 우리가 이러한 모순들에 봉착했을 때 지혜로운 판단과 실천적 전망을 말해줄 수 있는 현자, 닐 스미스가 이 땅을 떠났다는 사실이

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라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남아 그를 회상하고 그가 못 다한 일들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2. 국제비판지리학회 창립대회

내가 닐 스미스를 처음 만난 것은 1997년 4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Ft. Worth)에서 개최되었던 미국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였다. 나는 1996년 9월부터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하비의 초청으로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연구하고 있던 박배균(현재 서울대 교수)으로부터 닐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비판지리학회(ICCG: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ritical Geography 또는 ICG: International Critical Geography Group) 창립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아시아 비판지리학자들의 참석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이 요청에 응하면서 닐 스미스와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고, 포트워스 학술대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술대회에서 처음 닐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첫 인상은 그렇게 깊게 남아 있지 않다. 그를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던 건물의 홀 가장자리에 있는 간이 휴게장소에서 만난 것은 기억나지만, 학술대회에서 그가 무엇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처음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그를 만난 이후 국제비판지리학회 창립학회에 우리나라의 진보적 공간환경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본, 홍콩, 타이완의 비판적 지리학자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이 학술대회에 참석을 독려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지금이면 하지 못했을 일들을 당시에는 서슴없이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 무언가 닐로부터 상당한 자극을 받고 고무되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1997년 8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비판지리학회 창립대

회는 닐 스미스와 캐나다에 있는 그의 동료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대학교와 시몬 프레이즈(Simon Fraser)대학교의 교수 및 젊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이 대회에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3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였는데, 한국에서는 10여 명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10여 명의 지리학과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 참석자들 가운데 특히 일본의 미츠오카 후지오(水岡不雄, 현재 히토츠바시대학교 교수), 미츠우시 도시오(水内俊雄,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겐지 쭈쭈미(堤研二, 오사카대학교 교수), 홍콩의 탕영성(鄧永成, 홍콩침례대학교 교수), 그리고 타이완의 시아 주지우(夏鑄九, 타이완국립대학교 교수) 등의 이름이 떠오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들 가운데 두서명은 아마 당시 일본에서 박사과정 연구를 하고 있었던 김두철(현재 오카야마대학교 교수)로부터 명단을 받은 것 같고, 이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몇몇 학자들에게 참석을 독려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석박과정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공간환경학회의 회원들이었고, 지구화를 배경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관한 3개의 특별 세션을 구성하여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교수로는 김덕현(경상대학교), 조명래(단국대학교), 강현수(중부대학교), 그리고 박사과정 수료 또는 석·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변창흠, 이상현, 서종균, 이영아, 손정원, 신혜란, 김은란 등이 한국에서 바로 밴쿠버로 왔었고, 박배균과 이용숙은 미국에서, 그리고 나(가족을 동반하여)는 볼티모어에서 연구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밴쿠버로 갔었다. 이들은 지금 충남연구원장, SH공사 사장, 영국 UCL대학교, 서울대·한신대·대구대 교수 또는 국토연구원 등에서 중견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마도 해외 논문발표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참석자들은 학회 논문발표뿐만 아니라 밴쿠버 시내와 주변 록키산맥을 렌트 차로 구경 다니면서 서로 친밀감을 더할 수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닐 스미스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20년 전쯤된 과거의 이런 소중한 추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닐은 캐롤 데스빈(Caroline Desbiens)과 함께 작성한 국제비판지리학회 창립대회 평가 글에서 이 대회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 ‘이기기 위한 세상(a world to win)’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 대회에 서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인도, 호주, 남아공 등을 포함하여 30개국 이상에서 300여 명의 비판적 지리학자와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활기찬 학술활동을 펼쳤음을 알리면서, 그는 학술대회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여러 국가들에서 다양한 참석자들로 구성된 밴쿠버 학술대회에서 활기찬 낙관주의가 있었다면, 이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의 정치적 씨앗들을 키우고, 오늘날 우리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지구적이고 국지적인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 지리학적 대응을 위해 지리학자들의 국제적 모임을 구성할 시간이 성숙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지구화 담론에 합의된 낙관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 국제비판지리학회를 위한 우리의 야심은 정치적 연계와 조직을 추구함에 있어 규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 간의 대안적인 사회적 변증법을 표현하는 것이다”(Desbiens and Smith, 1999).

3.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의 창립

국제비판지리학대회에 대한 닐의 평가는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창립대회에 걸맞게 학회 장소는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많은 지리학자들과 사회 활동가들의 발표와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찼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평가의 글에서 “많은 국가들(일본, 북유럽 국가들, 한국, 최근 영국 등)에서는 이미 비판적 지리학의 조직화된 전통이 있었고, 다른 국가들(멕시코,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비판적 지리학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들이 있었다”(Desbiens and Smith, 1999)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한국(그리고 아마도 일본)을 전자의 국가군에 포함시킨 것은 정말 과장된 것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이러한 그의 인식으로 인해 밴쿠버 창립대회가 마칠 때쯤 아주 의외의 일이 생겼다. 닐은 나에게 폐막 총회에서 몇몇 참석자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와 학술대회 평가와 전망에 관한 토론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이에 응했다.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학술대회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뜻밖에도 한국이 다음 개최 장소로 거론된 것이다. 닐은 창립대회를 조직했던 그의 동료들과 미리 다음 개최 장소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전혀 귀뜸을 해주지 않았다. 지금도 그가 어떤 의도로 창립대회 후 모임의 지속성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2차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하고자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공식적 이유는 제2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연도인 2000년에 국제지리학대회(IGC)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편의적 이유에 불과했고, 사실 제3차 이후 ICCG 학술대회 장소는 IGC와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대구 학술대회 이후 개최 장소들을 살펴보면 추정될 수도 있다. 즉 그 이후 ICCG 학술대회의 개최 장소는 헝가리의 베케스차바(Békéscsaba, 2002), 멕시코시티(Mexico City, 2005), 인도의 뭄바이(Mumbai, 2007), 독일의 프랑크푸르트(Frankfurt, 2011),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라말라(Ramallah, 2015) 등이었는데, 프랑크푸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른바 제3세계의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는 비판적 지리학이 서구의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보다는 그 외 국가들에서 더 발전하고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아마도 이렇게 선정된 도시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굴레를 끊기 위한 약한 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많은 제3세계 도시들 가운데 왜 하필 한국의 대구였는가? 그들에게는 한국의 비판지리학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정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에 어떻게 한국에서 북유럽국가들처럼 ‘이미 비판적 지리학의 조직화된 전통’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어쨌든,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막상 한국 개최를 받아들인 후, 나의 개인적 역량은 차치하고 내가 속해 있는 대구 특히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의 분위기로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이 도와주겠지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치루기도 마땅찮았다. 해서 어찌되었든 대구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역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대구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비판지리학의 수준과 역량으로도 이 학술대회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본과 홍콩, 대만의 참석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1997년 가을 연구년에서 복귀한 후 나는 우선 일본의 비판적 지리학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소규모 콘퍼런스를 하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덕현 교수와 나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미츠오카 후지오, 미츠우시 도시오, 그 외 젊은 일본 지리학자들과 만나서 논의를 한 결과 ICCG의 지역학회로 ‘동아시아지역대안지리학회 (EARCAG, East Asian Regional Conference in Alternative Geographies)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창립대회를 1999년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모임은 물론 2000년 제2차 ICCG 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의 성격을 가지지만 나로서는 또 다른 일이 생긴 셈이었다. EARCAG 창립대회는 닐 스미스의 기조연설과 20여 명의 발표자들이 참석했다. EARCAG는 1999년 대구에서 창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홍콩(2001), 오사카·도쿄(2003), 타이베이(2006), 서울(2008), 말레이시아 세랑고르(Selangor, 2012), 오사카(2014), 홍콩(2016 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제2차 국제비판지리학대회와 개최

EARCAG 창립대회를 치른 후 나는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도 거의 받지 않고 혼자서 대회를 준비해야만 했다. 100명에 가까운 발표자들과 연락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발표 논문이나 요약문을 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세션을 나누고 발표자와 사회자를 선정했다. 대구대학교와 외부에서 약간의 후원을 받아서 자료집을 만들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프로시딩은 2차에 걸쳐 인쇄되었는데, 1차 프로시딩은 대회 전에 제출한 전문이나 요약문을, 2차 프로시딩은 대회 후 제출한 전문들을 수록했다). 그리고 참석자들 대부분에게 대구대학교 내 학생기숙사를 배당했다. 기숙사의 방은 학부 학생용이었는데 에어컨도 없었고, 샤워시설도 없었다. 이러한 열악한 사정을 미리 알리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대구의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공동 샤워시설을 사용하는 기숙사는 그들에게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참석자들 가운데 2~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숙사에서 1주일 가까이 숙식을 함께했다. 하비는 어린 딸을 데리고 이삼일 후에 참석했는데, 나의 아파트에서 하루 밤을 지내기도 했다.

어쨌든 제2차 ICCG는 2000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100명 정도의 발표자들이 참석했고, 오프닝 세션에는 나와 멕시코에서 참석한 블랑카 라미레스(Blanca Ramirez)가 기조 발제를 했고, 폐막 총회에서는 하비의 발표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또한 닐 스미스와 동아시아의 여러 비판적 지리학자 외에도, 조 페인터(Joe Painter), 돈 미첼(Don Mitchell), 신디 케츠(Cindi Katz), 스와프나 바너지구하(Swapna Banerjee-Guha), 크라우디오 민카(Claudio Minca), 마이클 베버(Michael Webber), 제리 플랫(Geraldine Pratt), 캐롤 데스빈(Caroline Desbiens), 니콜라스 로(Nicholas Low)를 포함하여 많은 저명한 지리학자들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닐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학회 발표가 끝난 후 매일 대구대학교 앞 술집에서 많은 참석자들을 불러 모아 술 마시고 담소 나



제2회 세계비판지리학회대회에서 닐 스미스, 데이비드 하비와 여러 참석자들
(2000.8.9~13. 대구대학교 정보통신원 건물 앞)

누기를 즐겼으며, ‘사회주의 ABC’를 함께 불렀다.

나는 제2차 ICCG 학술대회를 치루고 제3차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스미스와 여러 운영위원들을 만나, 다음 학술대회 장소로 계획되었던 멕시코시틀을 그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 헝가리의 베케스차바에서 개최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 사정으로 헝가리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계속 참석하질 못했다. 그 이후 대회에서도 지역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닐은 매년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 닐은 개인적 사정으로 뭄바이와 프랑크푸르트 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비판적 학문과 실천적 사회운동을 결합시키고자 한 그의 의중은 계속 반영되어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닐 스미스가 2011년 10월 30일 스와프나 바너지구하(Swapna Banerjee-Guha)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는 ICG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ICG는 3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첫째, 이 모임은 우리 모두가 방어적이거나 대체로 혼자 연구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정치적 지

원이 필요했던 상황의 신자유주의적 모멘트에서 유의한 급진적 정치를 살아있도록 했다. 둘째, 나는 이 모임이 급진주의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도록 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에 힘을 보태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히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영국 문화지리학자들이 아니라)을 생각하지만, 이들보다도 더 넓은 것이다. 이 모임은 큰 모임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모임이다. 셋째, 이 모임은 특히 전에는 없었던 우리들 간 국제적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ICG의 결과로 나는 그렇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남미, 유럽, 아시아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Ramirez et al., 2012에서 재인용).

5. 닐 스미스와 자본주의의 모순 극복을 위한 사명

닐 스미스는 1990년대 한국에는 비판적 지리학이 어느 정도 발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한국에서 비판적 지리학은 1988년 7월 한국공간환경연구회의 창립으로 싹이 텄고, 그 이후 1990년대 겨우 소규모 연구회 수준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관한 회고담은 별도로 서술되어야 하겠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비판적 지리학 또는 공간환경연구가 조직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편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즉 사회민주화 운동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비판적 지리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자들 사이에 많이 읽혔던 책으로, 하비의 『사회정의와 도시』, 『자본의 한계』, 그리고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의 『도시 문제』(Urban Question), 그 외 몇 권을 더 든다면,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1984), 도린 메시(Doreen Massey)의 『노동의 공간적 분업』(Spatial Divisions of Labour, 1984), 그리고 드렉 그레고리(Derek Gregory)의 『이데올로기, 과학, 인문지리학』(Ideology, Science and Human Geography, 1978)을

핍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은 분명 매우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하비의 저서들에 눌러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54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교외의 한 오래된 마을, 레이스(Leith)에서 태어나 닐 스미스는 어린 시절 주변의 자연경관에 매료되어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St. Andrews University)에서 지리학을 공부했고, 지도교수 조 도허티(Joe Doherty)의 추천으로 1977년 가을 흡킨스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하비의 회고에 의하면(Harvey et al., 2012), 그는 닐이 이 대학교로 오게 된 데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 하비는 연구원으로 파리에 가 있었고, 닐이 도착할 즈음에는 『자본의 한계』를 한창 저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비는 『자본의 한계』를 저술하면서 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을 완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 미첼의 말에 의하면, “흡킨스에서 하비가 자본의 순환에 관한 전망을 열어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닐의 관심은 훨씬 더 확장되었을 것”이라고 한다(Mitchell, 2014: 217).

닐은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이미 뉴욕의 콜롬비아대학교 지리학과에 조교수로 임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는 맹렬하게 학위논문을 작성했는데,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논문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강의실에서 수업 하거나 심지어 술을 마시면서도 논문을 집필했고, 활동가들과 연대하거나 도시 재활성화의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논문을 작성했다(Mitchell, 2014), 하비의 말에 의하면, 닐은 4달 정도 만에 학위논문을 완성했다고 한다. 닐은 1982년 후반 완성한 논문을 거의 수정 없이 출판사로 넘겼는데 이 책이 바로 『불균등발전』으로 출간된 것이다. 닐은 1986년 콜롬비아대학교에서 러거스대학교로 옮겼으며 1990년 정교수로 승진했다. 그리고 2000년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석학교수로 임명되어 자리를 옮겼으며, 2009년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가까운 애버던대학교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하기 위해 마련한 지리학 및 사회이론의 Sixth

Century Chair에 첫 임명자가 되었다.

닐 스미스는 생애 동안 매년 평균 5편의 탁월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4권의 단독 저서와 6권의 공동저서를 출간했다(Doherty, 2013). 그의 주요 저서는 『불균등발전』 외에도 『새로운 도시 전선: 재활성화와 리벤치스트 도시』(*The New Urban Frontier: 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 1996), 『아메리카 제국: 루즈벨트의 지리학자와 세계화의 서곡』(*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2002), 그리고 『세계화의 종반』(*The Endgame of Globalization*, 2005) 등이다. 특히 그는 지리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켜 불균등발전론을 정형화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도시적 규모의 젠트리피케이션이론과 지구적 규모의 제국주의 지정학을 정형화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제시한 주요한 개념들, 예로 자연과 공간의 생산, 지리적 규모의 정치, 젠트리피케이션과 지대격차 등과 아메리카 제국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관한 그의 연구는 비판적 사회이론과 실천적 운동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리벤치스트 도시(revanchist city), 점핑 스케일(jumping scale), 자연 세탁(nature-washing), 엘니노 자본주의(El nino capitalism) 등 많은 메타포들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그는 지리학의 역사와 철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기별로 부상했던 주요 사상과 방법론들(예를 들어 공간과 사회 간 관계, 후기실증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신비판지리학 등)을 둘러싼 논쟁을 주도하면서 미국 및 영국의 지리학회에 깊게 개입하는 한편, 비판적 지리학의 세계적 조직과 확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뿐 아니라 닐 스미스가 사회적 실천과 정치적 투쟁(특히 재활성화와 ‘도시적 탈취’에 저항하는 운동)에 미친 영향은 그가 학계에 미친 영향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닐은 도시 재활성화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에게 그들의 국지적 투쟁을 자본주의적 착취의 거시적 힘과 연계될 수 있는 사고들을 제시했으며, 또한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Wachsmuth, 2013). 그는 ‘종반’에 도달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제국주의적 침탈을 벗어나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자본주의 세력들의 연대가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희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생애 마지막 시기에 혁명의 역사지리적 조건과 그 결과를 이론화하는 작업을 착수했다(Smith, 2007; 2009). 이 작업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지만, 논리적 이성과 열정적 감성으로 충만했던 그의 삶은 세계의 많은 비판적 지리학자와 사회이론가들로 하여금 그가 못 다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하비는 닐 스미스가 남기고 간 비판적 지리학자의 삶과 죽음의 의미와 사명을 미리 예측했는지 모른다. 하비는 『불균등발전』의 3판 서문에 위대한 지리학자이자 무정부주의자였던 엘리제 레클루스(Élisée Reclus)가 전 생애에 걸친 투쟁의 끝에 그의 동료들에게 쓴 조언을 옮겨 적어 놓았다.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위대한 열정과 헌신만이 대의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니다. ... 의식적인 혁명가는 감성을 가진 사람일뿐만 아니라 이성을 가진 사람이며, 그에게 정의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정확한 지식에 달려 있다. ... 그러한 사람은 그의 개인적 사고를 인문과학의 더 큰 맥락 속으로 주입할 수 있으며, 그의 폭넓은 지식을 통해 얻은 무한한 권력으로 유지되는 투쟁을 용감하게 전개할 수 있다.” 동시대를 살다가 앞서 간 닐 스미스의 위대한 삶과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며

참고문헌

- Cowen, D., Harvey, D., Haraway, D., Rameau, M., Ramirez, B., et al. 2012. "Neil Smith: a critical geographer."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0, pp. 947~962.
- Desbiens, C. and Smith, N. 1999. "Editorial: The International Critical Geography Group: forbidden optimism?"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7, pp. 379~382.
- Doherty, J. 2013. "Neil Smith, 1954~2012: 'The future is indeed radically open'," *Urban Geography*, 34(1), pp. 1~4.
- Mitchell, D. 2014. "Neil Smith, 1954~2012: Marxist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4: 1, pp. 215~222,
- Smith N. 2007. "Another revolution is possible: Foucault, ethics, and politic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5, pp. 191~193
- _____. 2009. "The revolutionary imperative." *Antipode*, 41(S1), pp. 50~65.
- Wachsmuth, D. 2013. "For the possibility of another world: Tributes to Neil Smith(1954-2012): Part Two the contradictions of Neil Smith." *City*, 17(2), pp. 409~410.